



문재인 동문(법률학 1972)
제19대 대통령 취임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동문이 지난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동문은 우리학교 법률학과 72학번이며 김정숙 여사도 성악과 74학번 동문이다.
(사진= 중앙일보)

경희와 함께 한 문재인의 삶

대통령·영부인 동시 배출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지난 9일 19대 대통령선거가 우리학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법률학 1972)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 됐다. 역대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자들이 후보로 등장하고 단일화 없이 유력 후보들이 5명이나 나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41.1%의 득표율을 얻어, 24%를 얻은 자유한국당 흥준표 후보를 557만 951표 차이로 크게 따돌리며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든 뽑지 않았든 우리학교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사실에 학교는 자랑스럽다는 분위기다. 선거 이튿날 우리학교 정문에는 당선 축하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가 붙었다. 또한 우리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1일 롯데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연 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총동문회에 감사메시지로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최종 당선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문 대통령의 일화는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됐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일화는 문 대통령의 학창시절 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한 영부인 김정숙(성악 1974) 여사와의 일화였다. ‘법숙전’에서 처음 만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유신체제 시절 총학생회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끌던 도중 문 대통령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자 김 여

사가 다가와 닦아줬다고 한다. 캠퍼스 커플로 만난 두 사람은 7년의 열애 끝에 1981년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외에 우리 학교 설립자인 고(故) 조영식 박사와의 일화도 유명하다. 문 대통령이 서울대 입학에 낙방한 당시 조 박사가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법대수석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우리학교에 입학했다. 또한 시위와 구속으로 제적된 상황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그는 유치장 안에서 합격증을 받았다. 1980년 5.17조치 당시 시위로 청량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문 대통령은 조 박사의 신원보증 아래 극적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졸업 후 문 대통령은 부산으로 내려가 당시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합동법률사무소 운영을 시작으로 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학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는 당선을 축하하며 “현재 학교의 자랑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자랑이어주시길 바랍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당선을 축하하고 대학생과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선거과정에서의 색깔론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정책선거가 열룩졌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소수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이튿날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문 대통령은 5년 후인 2022년 5월 9일까지의 임기를 시작한다.



체육관 개관까지, ‘30년의 약속’을 짚어보다

종합체육관의 역사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국제】종합체육관이 오는 5월 17일 오후 4시 개관을 앞두고 있다. 개관식에선 1단계 사업 완성 및 2단계 사업 계획 보고, 법인 이사장 격려사 및 총장 기념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체육관은 SPACE21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지금의 종합체육관은 30여 년 전부터 계획되고 이름과 형태를 바꿔오면서 2017년 5월 마무리된 결과물이다.

‘경희대 체대(체육대학)’는 고유 명사와도 같이 불리며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한편, 그 이면의 체육시설 부족의 문제는 체대생들의 슬픈 그늘이었다. 그 시작은 체육대학과 체육과학대학이 따로 존재한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3년 두 체육 단과대학과 2001년의 통합

본래의 체육대학은 1955년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에 위치했고, 1979년 당시 국제캠퍼스(국제캠)에는 체육과학대학이 설립돼 체육과와 1983년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됐다. 이후 2001년 서울캠 체육대학과 국제캠 체육과학대학은 종복되

는 학과를 정리하고 국제캠으로 통합·이전된다. 체육과학대학은 다시 체육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 체제에 이르렀다. 국제캠이 설립된 1979년 이후 1980년대 초부터 종합체육관 논의는 시작됐다. 당시 체육대학 교수로 있었던 유승희(체육학) 전 학장은 “국제캠에 강당 기능을 가진 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계획은 1980년대 초부터 논의가 오갔다”며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한 이후 1990년대에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도에 체육대학장을 맡게 되

면서 국제캠으로 보직을 옮길 당시 조영식 학원장께 국제캠 강당 시설 부족과 관련해 종합체육관 건설을 부탁드렸는데, 이에 응해주시면서 논의를 이어나갔다”고 덧붙였다.

종합체육관 계획은 국제캠 설립 당시부터 계획돼오다가, 부족한 체육 시설 확충의 목소리와 서울캠 체육대학의 이전 논의가 맞물리면서 진척됐다. 체육대학 전의기(태권도학) 학장은 “원로 교수들을 통해 듣기로는 종합체육관 건설은 이전 조영식 학원장께서 체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학원장께서 ‘건전한 몸에서 건전한 사고’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캠 설립 당시부터 학원장께서 체육시설 설립에 대해 이미 복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에서 SPACE21까지

2006년 9월 7일, 체육대학 학생회

는 당시 기획조정실에 ‘빠른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으로 체대학생들의 수업 및 연습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후 14일 기획조정실은 서면으로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했다. ▲태권도장 및 종합체육관 건립은 2007학년도 1학기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해 건설 추진 ▲골프연습장은 2007년 4월경 공사 착공 진행 ▲스포츠 콤플렉스 설립과 관련해 9월 중 부지 조성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11월 중순 이내에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내용은 양 캠퍼스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구체화됐다. 유승희 전 학장은 “당시 종합체육관 건설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발전기금 역시 모였다”며 하지만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추진이 미뤄지자 학생회가 학교 측에 요청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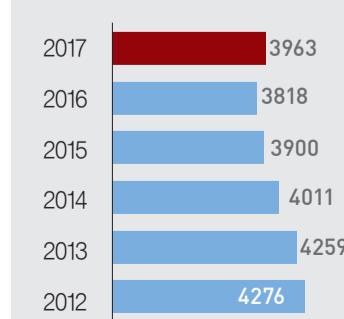
▶4면으로 이어짐

강좌 수 5년 만에 늘었지만,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 필요

대학알리미 공시분석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연도별 강좌수 추이



2017학년도 1학기 전체 강좌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소형강의(수강인원 20명 이하) 비율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도 개선돼 수치상 지난해 1학기에 비해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이번 학기 총 강좌 수는 3,963개로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145개 늘었다. 총 강좌 수는 지난 2012학년도 1학기 4,276개에서 매년 적게는 20개 많게는 200개씩 감소를 거듭했고, 지난해 1학기 3,818개까지 줄었던 바 있다. 매년 학생 대상 만족도 조

사에서 강좌 수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만큼 향후 강좌 수가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강의의 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항목인 ‘학생 규모별 강좌 수’를 살펴보면 이번 학기 소형강의 비율은 24.8%로 지난해 1학기 21.4%와 비교해 약 3.4%p 높아졌다. 또한 중대형 강의(수강인원 50명 이상 100명 이하) 비율 역시 지난해 1학기 24.8%에서 22.1%로 줄었다. 소형강의 비율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2016년 캡스톤디자인 과목이 신설되고, 글쓰기와 대학여행으로 인해 소형강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의 소형강의 비율과 비교할 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017학년도 1학기 각 대학의 소형강의 비율은 ▲한국외국어대 51.8% ▲한양대 48.5% ▲성균관대 33.8% ▲연세대 32.6% ▲서강대 29.1% ▲고려대 28.7%다. 한편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지난해 대학공시가 이뤄진 이래 처음으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50%를 넘긴 56.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이 소폭 상승한 56.9%를 기록했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월로 ID : 대학주보
- 라인 아이디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hunews/>

사령

66기 수습기자 6명

- ▲김지담(사학 2017)
- ▲이진아(아동가족학 2016)
- ▲조우형(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시선

사설

‘독자’와 ‘저널리즘’ 62년 맞는 대학주보의 다짐

우리신문이 창간 62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학내 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에서 구성원은 오늘날 미디어 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짚어주며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짚어주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 세계의 모든 언론사가 고민해온, 그러면서도 여전히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오래된 화두다. 그동안 누구도 ‘정답’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급속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이 한 해가 다르게 미디어 이용환경의 변화를 야기한 탓이다. 언론계가 지면에서 데스크탑 PC 속으로 옮겨간 미디어 이용자들의 시선에 대응하려 분주했던 사이에 2007년 등장한 아이폰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개막하며 미디어 패러다임을 ‘데스크’에서 손 안으로 옮겨버렸고, 언론계가 작아진 화면과 새로워진 UI에 대응하려 고심하던 와중에 2008년 말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며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페이스북은 본격 ‘SNS 미디어’의 시대를 열어버렸다. 지난 2012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오랜 고민에 대한 결과물로서 ‘스노우 풀’이라는 기획 기사를 내어 놓았다. 이 기사는 2013년 풀리처 기획보도 부문상을 수상하며 미디어 컨버전스와 인터랙티브 뉴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과 제작 시간이 소요되는 스노우풀식(式) 기사는 점차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언론계는 좀 더 본질적인 언론의 의미에 대해 고뇌하게 됐다. 다시,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신문은 지면매체와 웹페이지는 물론 이메일 뉴스레터와 다수의 소셜미디어 채널 등 유통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구성원과의 접점을 늘리는 한편 ‘디지털 환경 지향적인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뉴스의 형식 역시 카드뉴스, 영상뉴스 등으로 다양화하며 독자들에게 ‘찾아가는 언론’이 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구성원은 단순히 ‘보는(see)’ 뉴스 보다는 ‘읽는(watch/read)’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면서 결국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사의 유통방식이 아닌 기사에 담긴 메시지와 사유의 깊이임을, 곧 저널리즘임을 지적해주었다.

구성원의 이 같은 지적은 유독 ‘스토리텔링’이 전 분야에 걸쳐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귀담아들 을 금언이 된다. 콘텐츠 내부에 집중하는 내리티브와는 달리 스토리텔링은 콘텐츠가 향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오랜 역사를 지닌 내리티브에 대한 존중 없이 스토리텔링에만 집중할 경우 정작 콘텐츠는 사라지고 유통 방법론만이 남는 아이러니가 생겨나기 쉽다. 이번 설문조사가 대학주보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하겠다.

‘변혁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변화’라는 말이 있다. 혁신을 단행하려 할 때 기준과는 다른 약간의 변화만을 성취한 후 자칫 그것을 혁신이라고 여기고 안주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이다. 우리신문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해온에 있어 그 지향점을 ‘디지털’이 아닌 ‘독자’로 맞추겠다. 미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대학주보가 추구해야 할 본령의 질문임을 알고 더욱 신뢰감 있는 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해 독자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색 기고문에 감사한다

세시봉

이수형 (서울뉴스팀장)



우리신문은 개교기념특집호를 꾸리고자 구성원 대표들에게 기고를 요청했는데 감사하게도 5명의 기고자가 글을 보냈다.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은 ‘경희가 이룩한 지난날의 빛나는 성취’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멋들어지게 풀어썼고,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진도원 회장은 ‘원로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분들’에게 ‘재학생들을 대신해 감사’ 했다. 직원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우리대학의 노조이사제 도입을 기원했다.

그러나 개교기념 축사 정도의 글을 보낼 것이라 생각한 우리신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글들도 있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권예하 회장은 “본부가 자랑스러운 경희를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학교의 퇴행을 목격하는 듯하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대학의 비민주적 운영’을 열거하는 한편, 유학생회 허문천 회장은 “학교가 유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가 유학생을 ATM 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학교에 대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로이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개교기념호 기고글로는 이색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편집인들은 속된 말로 ‘벙글’ 수밖에 없었다.

개교기념일 기고로 학교에 ‘탄원’

이들의 요구 찾아 듣겠다

본래 기고글을 요청한 목적은 개교 68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자는 의미가 컸다. 이번 신문의 또 다른 이점이 개교 ‘기념’ 호이니 말이다. 편집인들이 당혹스러워한 이유는 이 목적과 다른 글을 받아 당황한 것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들의 요구를 모르고 있지 않았는데…’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특히 허문천 회장이 요구하는 바는 거칠고 강한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글을 기고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다수 유학생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글을 쓰면서 ‘늘 당신의 옆에서’라는 슬로건을 처음 두면서 한 다짐을 다시금 되새긴다. 당황이 가신 지금은 이 이색 기고문에 감사한다.

우리신문에 원망어린 개교기념 기고문을 보낸 이들에게, 또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교 68주년은 어떤 의미일까.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모교의 생일일까. ‘불통’이고 ‘유학생을 돈 나오는 기계로 아는’ 학교가 도취에 빠진 날일까.

이들의 요구를 찾아들겠다. 능력이 부칠 수도, 혹은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신문은 다음 개교기념호에는 모든 기고자에게 기분 좋은 축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교기념 기고를 받은게 아니라 우리신문의 창간에 맞춰 의견을 모은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정진하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어느 유학생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허문천 회장의 문장이 마음에 절절히 울린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우리학교 장진 석학교수

2017 호암상 수상 영예

미디어 여론동향 2017. 5. 1. ~ 5. 1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전용우 회장, 김마루 학술 연구연합회장, 신예은 동아리연합회장이 잇달아 사퇴했다. (회장 비롯한 국운위 성원 사퇴 … 교수성추문 진상조사 ‘정지’/대학주보 온라인, 2017.5.2)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신 동연장에 이어 전 회장과 김 학연장도 지난달 30일 각각 사퇴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문과 운영위원회에서 국문학과 교수 성추문 사건에 대응하는데 주축이 됐던 인물들로 해당 사건 해결이 미진하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전 회장은 본인이 다른 성폭력 사건의 피고소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운위 대표 인사 3인의 사퇴로 인해 국문학과

교수 성추문 사건 진상규명은 사실상 중단됐다.

장진(정보디스플레이학) 석학교수가 2017년 호암상의 주인공이 됐다. (장진 교수, 호암상 공학 분야 수상/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5.8) 장 교수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 최초 플렉시블 및 투명 AMOLED를 개발해내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를 선도해 왔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연구 역량을 향상 시킨 장 교수는 30여 년 전 삼성 이병철 전 회장이 진행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디스플레이 연구에 뛰어들었다.

우리학교 원자로센터가 세계 대학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격원자로 실험교육기관(Internet Reactor Laboratory, IRL)으로 공식 지정됐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나선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5.11) 2008년 설립돼 국내 유일 교육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원자로센터는 매년 IAEA가 실시하는 안전, 방사선, 핵 통제 규제 심사를 받는 한편 전국 원자력공학과 학생 실험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원자로센터는 IAEA와 협력해 매년 1회 이상 타 대학교 육을 지원할 의무를 갖는다. 김명현 센터장은 “세계 대

학 최초 IRL 지정인 만큼 국내외적으로 우리학교 인지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72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리학교가 정상을 차지했다. (핸드볼경기대회, 원광대 꺾고 종별대회 정상/뉴스 외, 2017.5.2) 핸드볼부는 남자 대학부 결승전에서 원광대를 24-19로 꺾으며 2년 전 같은 대회 결승에서 패배했던 설욕을 치렀다.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총 6개 팀이 참가한 남자 대학부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대회 내내 안정적인 전력을 뽐냈다. 아울러 최범문 선수는 최우수선수상, 김민호 감독과 김선호 코치는 지도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배를 축하하는’ 글(#경희술_21540, 2017.5.10)은 1,296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글쓴이는 ‘선배님,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현재 학교의 자랑이라 생각됩니다’며 문 대통령의 당선 축하를 암시했다. 글이 쓰여지기 몇 시간 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1%의 득표율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글쓴이는 이어 ‘다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자랑이어 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라며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의 역할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대학, 지속 가능한 미래위해 ‘교육·의식 혁명’ 재촉해야”

조인원총장인터뷰

기호웅 기자 kihodori2@knu.ac.kr

#. 우리학교 개교 68주년을 맞이해 조인원 총장을 만나 변화하는 시대의 대학의 역할과 우리학교의 미래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 총장은 현재 학교가 진행 중인 사업과 제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정부의 대학 교육정책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했다.

Q1 과학기술의 발달과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고등교육 시스템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어떠한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나?

“미래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재 문명전환의 내용과 속도가 그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이점(singularity)’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이 점에 이르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사물인터넷과 유전공학 같은 첨단기술이 급진전하면서, 조만간 인간의 사유 범주를 초월하는 세계가 도래할지 모른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이 문명의 전환적 ‘가능성’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올 것이라는 말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 어느 때보다 삶과 생활의 실용적 가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겠지만, 인간의 통제 밖에서 작동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인간을 ‘잉여의 존재’로 내몰 수 있다. 대학은 실용과 풍요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삶의 의미를 고양하는 상상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

**빠른 문명전환의 내용과 속도
‘가능성’과 ‘우려’의 ‘공존’**

Q2 2017학년도 입학식 환영사에서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인 진리 추구뿐만 아니라 학문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BLUE PLANET 21’이라는 글로벌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BLUE PLANET 21’ 사업은 대학의 공적 책임을 위한 글로벌 연계협력 사업이다. 경희의 학술역량을 사회로, 세계로, 미래로 연결하면서, 사람과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연계협력 클러스터 개념을 다년간 전진시켜 왔다.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다섯 분야 중 앞의 세 클러스터가 먼저 출발했다. 국가와 기성정치가 ‘시장과 권력’의 편협한 논리로 공적책임을 방기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Blue Planet21’이다. 또한 양 캠퍼스에 지역사회, 국가와 사회, 국제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학술과 실천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이영립 동문께서 기부한 40여만 평의 금산 부지에도 태양광과 청정에너지, 물 문제, 한약물 연구 기반시설을 기획해 환경·에너지, 공공보건 문제를 다루어갈 예정이다.”

Q3 이전 정부는 여러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운영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총장께서는 고등교육과 대학운영에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국가는 성장과 소비, 경제와 지배의 정당성에 거의 모든 것을 걸어왔다. 정치는 그런 생존과 실리의 문화 속에서 정파와 계파, 눈앞의 이익과 투쟁에



▲우리학교 개교 68주년을 맞이해 조인원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우리 신문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차관호 기자)

익숙해져 있다. 대학 역시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어진 국가의 틀, 현실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대학 본연의 가치를 깊이 성찰하지 않았다. 개인과 시민,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행복은 무엇인지,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지, 늦었지만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국가와 정치는 대선 전 발현된 각성된 시민의식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대학은 21세기 전환적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교육혁명’, ‘의식혁명’의 길을 재촉해야 한다.”

Q4 우리학교는 각종 국고지원사업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국고지원사업 도전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이후 그간 우리학교가 내세우던 대학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과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시각이다. 우리 대학은 정부의 필요에 응하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처해왔다. 일례로 시대와 현실이 요청하는 산학협력·관학협력에 응하면서, 사업의 시민적 가치·지구적 가치를 잊지 않는 방향에서 지원 내용을 만들어왔다. 후마니타스 정신은 ‘인간의 가치, 자연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앞으로도 이 길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가치를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도 현실과 시대의 필요를 외면할 순 없다.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Q5 국제캠퍼스의 종합체육관, 서울캠퍼스의 한의과대학관과 이과·간호대학관 등이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SPACE21 사업의 제1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환골탈태하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구성원들은 감탄을 하는 한편, 앞으로의 계획에 궁금해 하는 점들이 많다. 향후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Space 21 1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

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난 1979년 국제캠퍼스 이전 당시 설립자께서 약속한 종합체육관 건설이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됐다. 양 캠퍼스 노후건물 개보수 사업 착수와 함께 2단계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산학협력관과 외국인 학생·교원을 위한 국제회관을 건립한다. 예술디자인대학 뒤편에는 R&D Valley를 관산학 협력, 글로벌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캠퍼스도 구 이과대학 건물 중 하나를 산학협력관으로 개조하고, 구 한의과대학과 인근 부지에 국제회관과 글로벌타워를 건립하고자 한다.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시설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올해 1단계 사업 완료 노후건물 개보수와 2단계 사업 예정

Q6 지난 3월 대학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17년도에 대학이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재정 정책’이 1위로 꼽혔다. 우리학교의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정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재정문제,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들이 겪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가 더 그렇다. 세계 굴지의 고등교육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 대학도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는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학에 종사하는 교원과 직원의 임금과 복지는 현실적으로 향상돼야 한다. 교육의 질, 연구의 질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어진 여건에서 재정사업을 해나갈 방도 외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부지 활용과 학교기업 활성화, 기부금 증대, 교외 연구비 확충을 통해 그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난 수년간 경희의 대학재정 건강도는 국내 정상권을 향상 유지해왔다. 지금은 중장기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체계적

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다. 부족했던 소통에 대한 부분은 방침을 세워 보완하도록 하겠다.”

Q9 본·분교문제는 오랜 세월동안 구성원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국제캠퍼스를 분교로 인식하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회사는 양 캠퍼스를 구분지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에 올해 당선된 제49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는 ‘캠퍼스 차별 완화’와 ‘캠퍼스 명칭 변경’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애석하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그 어떤 정책적, 행정적, 제도적 차별도 없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대학’이다. 그러나 두 차원의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하나는 내부 인식이다.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아직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외부 문제이다. 여전히 주요 사립대학들이 본·분교 체계를 유지하면서, 심지어 대학 평가까지도 분리해 받는다. 그런 현실 때문에 사회인식이 그렇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문제 역시 더욱 심층적인 조사·분석에 기초해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

명실상부한 하나의 대학 내·외부 차원의 노력할 것

Q10 끝으로, 개교 68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경희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한다.

“경희는 지난 68년 많은 것을 이뤘다. 학술과 교육면에서 국내 명문이 됐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세계 굴지의 대학, 대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고등 학술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대학 순위에서 최정상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다. 구성원의 긍지를 고양하고, 사회와 세계, 미래에 공헌하며, 대학이 이룬 교육·연구의 결실을 이웃과 사회, 인류와 함께 나누는 그런 대학이 되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이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힘을 모아야 이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알려진 태양 폭풍의 빈번한 이변과 운석 충돌의 높은 가능성, ‘성장문명’의 팽창이 빛어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생태교란과 전염병 침략, 그리고 골 깊은 사회적 양극화의 고조된 긴장 같은 인류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와 대책을 요청한다. 우리 모두의 공동선인 ‘미래’, 그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성취와 보람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간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한다.”



▲조인원 총장과의 인터뷰는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됐지만 면밀히 대답해 주었다. 인터뷰 전문은 대학주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사진= 출판문화원)

기획

“체대 통합부터 그려진 밑바탕 완성됐다”



종합체육관 외부 전경. 1980년대부터 계획된 종합체육관이 2017년 5월 17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사진= SPAEC21 건설사업단)

▶ 1면에서 이어짐

마스터플랜은 양 캠퍼스에 걸친 건물을 정비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SPACE21 사업의 원형이다. 특히 국제캠에선 3개의 구간(Zone)에 걸쳐 건물 신축을 계획했다. 이 중 Zone3(스포츠 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체육시설 확충이 예정됐고, 생활체육시설과 골프장을 포함했다. 마스터플랜은 2009년을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했지만, 재원 조달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종합체육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애초 종합체육관은 국제캠 테니스장 위치로 설정됐다가 전자정보대학 주변으로 변경됐다. 최종적으로는 현재 생명과학대학 맞은편에 지어졌다. 전 학장은 ‘종합체육관 건설에 수차례 변동이 있다 보니 착공식을 세 차례 진행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만큼 부지를 정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2013년에 이르러 다시 종합체육관의 청사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에는 SPACE21 사업의 캠퍼스 입면도가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의 마스터플랜 계획안보다 약 1,200평이 축소된 모습이었고, 국제캠에 배정된 예산도 이전 1,795억 원에서 914억으로 줄어들었다. 다음 해인 2014

년 11월 24일 시공사를 정하는 입찰이 유찰되면서 다시 진행한 입찰 끝에 12월 5일에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결정되면서 준공 일정이 구체화됐다. <참고기사> 대학주보 1616호 5면>

다음 해인 2015년 7월 6일, 구조물 기초 공사에 들어가면서 체육관 건설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초공사 외에도 2016년에는 국제캠 전반의 도로와 수로를 정비하는 부대토목공사가 진행됐다.

오랜 약속의 이행

향후 사업의 원동력 될까

오는 17일 개관식을 진행할 종합체육관은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종합체육관의 정식 명칭은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종합체육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약 220억 원으로, 교비 131억 원과 체육대학 발전기금 89억 원으로 구성됐다. 체육대학 전의기 학장은 “종합체육관은 체육대학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서로 조금의 절차를 지켜 사용한다면 체육대학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에게 모두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종합체육관은 양 캠퍼스의

SPACE21 1단계 사업 중 첫 번째로 완성됐다. 그만큼 세간의 이목 또한 집중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다만 종합체육관 완공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몇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학교 전체에 있어 우리학교가 장기적으로 이끌어온 계획이 다소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SPACE21 사업은 단순히 공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임과 동시에 학교가 구성원들에게 제시한 오래된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체육대학의 공간 문제 및 여건 조성에 관한 것이다. 2006년 당시 체육대학 학생회에서 대학본부에 요구한 공간 개선 약속이 이뤄짐으로써 체육부 및 일반 체대 학생들의 실기 수업의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학장은 “학원장님의 지난 약속이, 그리고 학교 발전 전체의 큰 그림 중의 일부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체육대학의 국제캠 이전으로부터 그려진 밑바탕이 완성됐다”며 환영했다. 유승희 전 학장은 “국제캠에도 강당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라도 마련돼 기쁘다”며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쉽지만 구성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학교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학내 구성원 복지 향상 기대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종합체육관은?

【국제】종합체육관 개관식이 오는 17일 진행된다. 생명과학대학 건너편에 위치한 종합체육관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의 규모로 구성된다. 약 2천 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입학식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설 관리는 체육대학에서 하며, 체육대학이 아닌 일반 학내 구성원 및 지역 사회에도 일부 시설은 개방될 예정이다. 종합체육관 신축은 2015년 1월부터 진행돼 2017년 3월까지 약 27개월 간 공사가 진행됐다.

지하 1층에는 182평의 웨이트장, 93평의 AT실(Athletic Training)과 대형·중형 세미나실, 태권도경기장과 관람석 등이 마련된다. 지상 1층의 다용도 체육관은 1,840석의 좌석과 추가로 바닥에 의자를 설치하면 2천 명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기장 및 공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523평의 농구 코트와 행정실과 선수·심판 대기실, 선승관, 카페 등

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10,284m² (약 3,111평)
실내체육관 총 수용인원(객석 수): 1834명

공사기간

2015년 01월 ~ 2017년 03월 (27개월)

공사비

220억원(대학: 131억 / 체육대학기금: 89억) + α

주요시설

지상3층 1,305m² 조깅트랙
지상2층 1,835m² 무대조정실, 관람석, VIP실
지상1층 3,771m² 다용도체육관, 행정실, 선수·심판대기실, 선승관, 카페 등

지하1층 3,003m² 태권도훈련장, 체력단련장, AT실, 수치료실, 세미나실, 랙카룸 등

사 과정의 자원을 활용해 스포츠의학(Athletic Training)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는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거나 재활 치료에 이용된다. 체육대학 측에선 ‘예방의학’으로서 지역사회·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체육관 내 헬스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육대학 전의기(태권도학) 학장은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포츠는 건강과 협동의식 등을 길러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위의 사업을 통해 경희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육대학 소속 교수와 석·박



종합체육관 1층 내부 투시도

중앙도서관 연중기획 「책읽기의 즐거움, 내가 만난 세상」 제19회 「다독 및 독서노트 습관화하기」 공모

중앙도서관에서는 경희 구성원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소장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9회 다독 및 독서노트 작성 및 독서노트 작성

공모 개요

- 내용: 다독(도서대출) 및 독서노트 작성
- 대상: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대학원)
- 기간: 2017. 5. 1일 ~ 11. 5.(일)

독서노트 작성

- 책을 읽고 간직하게 “독서노트”를 작성(100자 이상)
- 작성 양식: 홈페이지로 그려인 → 읽은 책 도서검색 → 해당도서 독서노트 쓰기

발표

- 상자 선정: 독서노트 작성 건수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
- 당첨자 발표: 2017. 11. 14.(화) 예정

시상

- 최우수상 1명(상품권 20만원)
- 우수상 6명(상품권 10만원)
- 입선 12명(상품권 5만원)

유의사항

- 응모작은 본인의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이미 발표되거나 제출된 작품, 표절물, 모방작은 신사에서 제외됨
- 응모작은 적합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독서노트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 수상 후에도 표절 또는 모방 사설이 밝혀질 시 수상 취소와 상금을 회수 조치함
- 제출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귀속됨

문의사항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T. 031-201-3213)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7. 05. 22(금)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7. 05. 31(수) 17:00 까지 학번부여: 2017. 06. 09(금)	학부부여SMS 안내문자발송
수강신청기간	2017. 06. 14(수) 10:30 ~ 06. 15(목) 17:00	본교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 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클릭”
폐강공고	2017. 06. 15(목) 12:00(화) 2017. 06. 24(수) 09:00(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7. 06. 16(금) ~ 06. 20(화)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 (폐강과목수강생)	2017. 06. 21(수) 09:00 ~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방문 (2차폐강과목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7. 06. 22(목) ~ 07. 13(목)	
성적발람일	2017. 07. 13(목) ~ 07. 14(금)	
성적정정일	2017. 07. 17(월) ~ 07. 18(화)	

●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1) 국제교류처,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 활동은 6학점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2) 대학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

나. 수강신청 방법
1) 경희교류처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직접 신청(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에게 직접 수강신청과목 선택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가. 서울캠퍼스 1층 교육정보센터 1010호(교내전화 031-933-0261~933-0261)

나.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3401~4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 교육관 5층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기획

제3의 중핵이 넘어야 할 두 번째 산, '평가방식'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③

양윤주 기자 cyanide@knu.ac.kr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빅문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사항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 또한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기사에서 '팀 티칭'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크게 3가지로 짚은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빅문의 '평가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빅문'을 수강중인 A양은 시험을 보려 배정된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시간에 빅문을 듣는 다른 친구들이 해당 교실에 앉아있다. 어리둥절해서 주위를 둘러보다 빅문의 모든 반 수강생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막상 시험지를 받고 풀다보니 당황스런 문제가 하나 둘 보인다.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나온 것이다. 다행히 A양은 시험공부 중 따로 찾아본 자료로 풀 수 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옐리베이터에서는 같은 시험을 친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려주고 강조까지 했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들려 혼란스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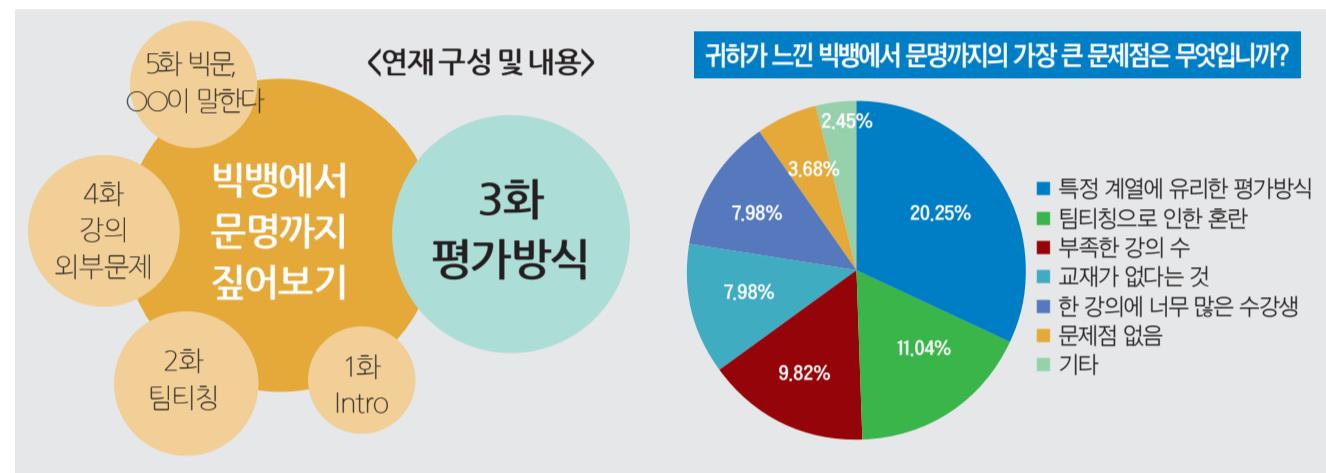
빅문은 지난 해 2학기부터 각각 성적산출의 35%에 해당하는 중간·기말고사를 시험기간 전후 특정 날짜에,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오후 7시 30분부터 빅문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이 같이 시험을 보는 방식을 취해 왔다.

다른 강의, 같은 시험 '원래 알던 과학지식' 요한다

시험은 청운관에서 실시되며, 각 반의 학생들은 속한 반과 상관없이 학번별로 시험장소를 재배정 받아 응시한다. 시험은 모두 객관식이며, OMR카드를 사용하고 모든 수강생이 동일한 내용의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타 중핵과목들과 확연히 다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같은 이름으로 2개 이상의



지난 11일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크라운관에서 '참을 수 없는 과학기술의 가벼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있다. (사진= 박예령 기자)



반인 개설된 강의 중 빅문과 같이 수업시간 외에 해당 강좌의 모든 학생이 한 번에 시험을 보는 방식을 가진 강의는 '외국인 전용 글쓰기'뿐이다.

지난 1학기와 2학기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실시된 빅문의 평가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빅문이 지금과 같은 시험방식을 택한 것은 지난해 2학기부터다. 지난해 1학기 서울캠에서 처음 빅문 수업이 도입된 때에는 여타 중핵·교양과목과 동일하게 시험기간 내 각 수업시간에 각 반별로 시험을 진행했다.

2학기에 들어 현재의 시험방식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빅문을 총괄하는 송재규(화학) 교수는 "지난 1학기 각 반마다 다른 시

이 문제의 유형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후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시험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세미(물리학 2016) 양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험 시간을 통일하도록 시험지는 각 반마다 다르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현(언론정보학 2016) 교수는 "빅문의 각 수업에 충실했는지 성취도를 알아보는 평가라기보다 평가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3월 대학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빅문을 수강완료했다고 답한 응답자 전체 123명 중 32

명(약 25.6%)만이 빅문의 중간·기말고사가 '매우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답했다.(대학주보 제1618호 1,3면, 2017.4.3) 주목할 점은 수강 완료한 시점에 따라, 즉 빅문을 수강한 학기에 따라 반응의 추이가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이다.

평가방식 변경하자

시험만족도 절반으로 '뚝'

지난해 1학기, 다시 말해 평가방식이 바뀌기 전에 수강완료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는 빅문의 중간·기말고사가 '합리적'이거나 '매우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평가방식이 바뀐 이후인 지난해 2학기에 수강완료를 한 응답자 중에서는 단 20%만이 빅문의 중간·기말고사가 '합리적'이거나

'매우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절반에 달하는 20%가 하락한 것이다.

바뀐 평가방식이 이번 학기에도 지속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설문 응답자 A씨는 '분반이 돼있는 과목 특성상 PPT 자료가 각 반마다 차이가 있는데 특정 반 수업에는 없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불합리하다고 느꼈다'고 답했으며 고나원(경영학 2016) 양도 "시험보기 전부터 분반마다 교수님들이 이 달라서 걱정이 됐는데 실제 시험에서 배운 내용보다 주가지식을 요구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 빅문을 수강한 임세미(물리학 2016) 양 또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아니라 원래 알던 과학지식으로 풀었다"라며 "같은 과(물리학) 친구들도 빅문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풀기 힘든 시험이라 문과 친구들이 풀기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빅문 가장 큰 문제점

'특정계열에 유리한 평가방식' 꼽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빅문의 기획에 참여한 권영균(물리학과) 교수는 "교수들끼리 시험문제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통으로 가르친 내용만 시험에 출제한다"고 답했다. 빅문을 총괄하는 송재규(화학과) 교수 역시 "만에 하나 배우지 않은 내용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반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기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별 상대평가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 설문에 응답한 B씨는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이공계 학생이 맞출 가능성이 높아 특정계열 학생은 불리하다'고 답했다. 같은 설문에서 '특정계열에 유리한 평가방식'이 빅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보기 힘들다.

교육학자 랄프 원프레드 타일러는 '교육 평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 목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밝히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서울캠 빅문의 평가방식은 이러한 원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될 중핵교과인 만큼 보다 완성도 높은 강의 운영이 필요해보인다.

2017학년도 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첨경〉

- ①UN산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쉽 매년 18명 제공
- ②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③전 과목 영어로 강의
- ④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7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접수원료 원서기준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원료 대상자기준 합격자수시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nu.ac.kr>

·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ip@kn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17 Kyung Hee Repertory Dance Project

일시 : 2017. 5. 22(월) ~ 25(목)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HU, Seoul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 무용학부 49대학생회 · 문화아이템프로리전터 Contact : 02961.0539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17학년도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졸업 작품 발표회

1. 주제: STORE
2. 일시: 2017.5. 19. (금) 16:00 / 19:00
3. 장소: 평화의 전당 1층 로비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3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10-701, Korea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1층 로비

지도자 중의 지도자 돼라



공영일 법인이사장

공영하는 인류의 공동체 사회입니다.

설립자께서는 우리 경희인들이 지도자 중의 지도자가 되어 인류 사회를 이 위대한 인간의 문화세계, 인류의 공동체 사회로 이끌어 가는 길잡이가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인간의 길, 인류의 길을 찾아 나선지 어언 68년, 이제 경희가 가는 길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오토피아 문명의 대로가 되었으며, 경희는 사학의 명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경희가 이룩한 지난날의 빛나는 성취는 경희의 자랑이며 경희인의 자부심입니다.

이제 경희는 그동안의 성취를 '학문과 평화'의 역사와 전통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전환의 격류를 맞아 기

후문제, 불평등, 폭력, 난민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구 의제에 대해 학문적,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희의 이 새로운 도전은 21세기 '대학다운 미래대학'이라는 경희 역사의 새 지평을 열리라 확신합니다.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희와 경희인의 빛나는 성취를 축하하면서, 2017년 개교기념일을 맞은 경희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개교 68주년을 경희인 모두와 함께 경축하는 바입니다.



개교 68주년



※ 교수의회의 경우 사정에 의해 기념칼럼을 보내오지 못했기에 알려드립니다. 각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를 꿈꾼다



김종현 노동조합 위원장

할을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대학의 역사를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시와 이행', '책임과 권한'이 철저하게 이분화돼 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조직의 구조가 결과적으로 대학 발전에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최근 각종 정책 배경에서 거론하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압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의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당국이 지시하고 교직원은 무조건 따르는, 권한은 대학만이 가지고 교직원은 책임만 지는 경직된 구조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요하게 될 변화의 끝자락이라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다시 노동이사제다. 노동이사제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사회의 정규멤버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당연히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미 보편화된 유럽 지역은 물론 미국 등에서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교 68주년을 기념해 달라는 청탁 원고에서 굳이 노동이사제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실천이라는 대학의 기본적인 역

기획

SNS 줄고 뉴스레터 늘고 … 포맷 패러다임 고민 필요

장간 62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

차관호 기자 jyppfhv@knu.ac.kr

올해 대학주보 장간 62주년을 앞두고 대학주보는 구성원 미디어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독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신문이 걸어온 혁신의 길이 맞는 방향인지 짚어보고 가야 할 길을 조망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장간 61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대학주보 제1607호 8면, 2016.5.23) 결과는 고무적 이었다. 모바일이 대학주보를 접하는 제1의 미디어(55.6%)로 나타났고 절대다수의 이용자가 대학주보 소셜미디어(54.7%), 이메일 뉴스레터(40.7%)를 통해 기사를 접했다.

올해 동일한 설문지로 지난 8일부터 11일 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설문 결과는 작년과 사뭇 달랐다. 대학주보를 이용하는 미디어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인터넷을 꼽은 응답자는 47.4%로 지난해에 비해 약 10%p 하락했다. 통로 역시 달랐다. 인터넷을 통해 대학주보를 접한다는 응답자 중 소셜미디어로 대학주보 기사를 읽는다는 응답자는 33.3%로 지난해 조사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응답자의 60.6%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대학주보 기사를 읽는다고 답해 이메일 뉴스레터가 주요한 채널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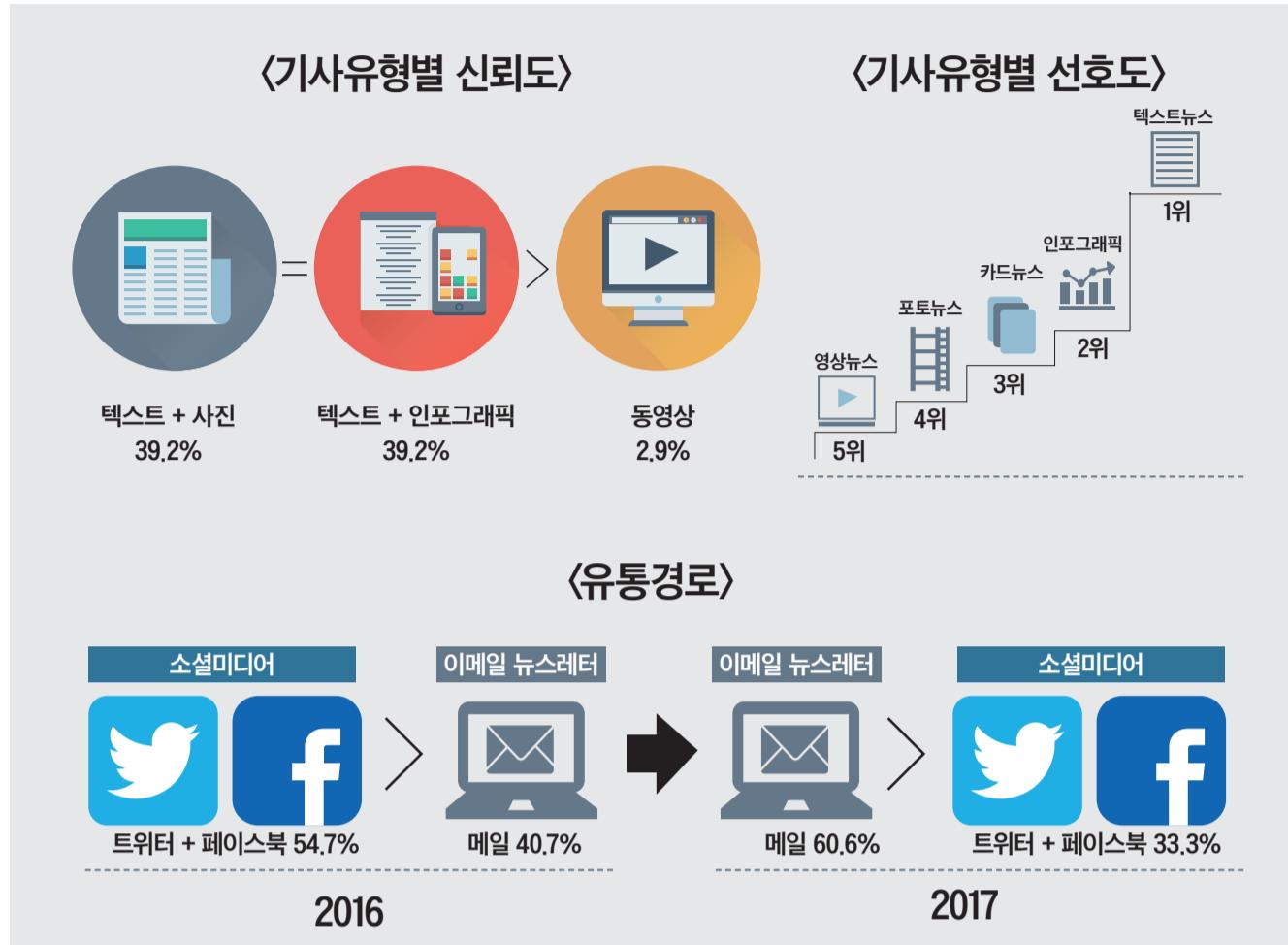
올해 초부터 카카오톡 웹페이지 운영, 애브리타임 게시판 운영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확장했지만 성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계용량에 달한 기존 채널들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노력이 미진했거나 사용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를 보다 편하게 접하게 해 드리고자 했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주보에의 접근성이 대한 불만을 말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설문에서 대학주보를 모른다

고 응답한 구성원 중 40.7%는 '콘텐츠 접근성이 떨어져서'를 이유로 꼽았다. 올해 조사의 같은 질문에서는 비중이 30%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신문으로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뉴스 큐레이팅의 시대에 우리신문이 구성원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간 이용 일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주 2일 이상 대학주보를 찾는 독자가 응답자의 46.8%였지만 올해는 36.2%의 응답자만이 주 2일 이상 대학주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매일같이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했던 대학주보의 다짐과는 달리 최근 기사 생산량이 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대학주보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날카로운 질책이라 생각한다.

포맷보다는 콘텐츠에 집중한 기사 선호

한편 올해 설문에서는 기사의 포맷과 관련 문항을 추가했다. 지난해 설문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어떤 형태의 기사를 원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주보는 '디지털 퍼스트' 기조와 함께 디지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이 2015년 신설된 영상팀이다. 하지만 동영상 기사는 선호도와 신뢰도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선호도 100점 만점에서 텍스트 뉴스가 73.4점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인포그래픽 뉴스(69.7점), 카드뉴스(62.5점), 포토뉴스(61.9점)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동영상 뉴스는 3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뢰도 역시 선호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동영상 뉴스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반면 '텍스트와 사



진', '텍스트와 인포그래픽'이 훈제된 기사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뉴미디어 시대라 할지라도 독자들이 여전히 대학주보에 기대하는 '저널리즘'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는 앞서 혁신에 대한 고민을 품었던 해외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2016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5만 여 명의 설문 대상 중 24%만이 평상시 동영

상 뉴스를 소비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소비되는 연성 뉴스 동영상과 달리, 경성 뉴스를 기반으로 한 뉴스 영상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미국 여론조사 전문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18~29세의 '젊은 성인'들은 동영상 '보기'보다 텍스트 '읽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포맷이 아니라 콘텐츠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매체 자체의 신뢰도는 학내 다양한 미디

어 중 가장 높았지만(57.4%) 그러한 지위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대학주보는 혁신을 이어갔다. 장간에 맞춰 매년 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독자의 목소리를 통해 혁신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어떤 형태의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한다. 독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혁신은 자기만족에 그쳤을 것이다.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의 꾸준한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리며 대학주보에 보내준 신뢰에 감사드린다.

곧 사라질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교내 웹 환경 개편

차관호 기자 jyppfhv@knu.ac.kr
박예령 기자 cyon03@knu.ac.kr

나날이 다양해지는 인터넷 환경과 HTML5 등 차세대 표준 확산에 따라 교내 웹페이지들의 다양한 브라우저, 모바일 접근성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ICT 정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 웹페이지 액티브X 완전 폐지를 내걸었다. 액티브X는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기,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으로 국내 온라인 환경에 뿌리 내렸지만 시대가 흐르며 인터넷 사용 환경이 다양해지고 웹 표준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며 퇴출 운동에 시달리고 있다. 사용성의 측면에서 액티브X의 문제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인 만큼, 윈도우즈와 Internet Explorer(IE) 환경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성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의 경우, 로그인 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IE11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각종 증명서의 발급과 출력에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윈도우즈, IE 브라우저 조합 이외의 PC 환경이나 모바일에선 사용이 힘든 이유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이용자들이 교내 웹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빈도는 적었다. 우리신문이 장간 62주년 기획으로 실시한 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내 뉴스를 접할 때 고정형 이동형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자 중 85%가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이메일 뉴스레터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비율은 7%에 지나지 않았다.

교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종합정보시스템, 웹메일 등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지원처는 info21이라는 이름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웹메일은 지난해 연말 구글의 'Gmail'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웹메일 서비스를 각종 PC용 브라우저, 모바일을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강신청 시스템 역시 2013년 개편을 통해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우저와 모바일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info21 사업도 궤를 같이 한다. info21은 2000년에 처음 구축돼 노후화 되고 이런 저런 증축을 통해 관리의 복잡도가 증가한 현재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월 중 1단계 개편 결과로 행정, 연구와 관련된 기능들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학사정보 시스템 등 모든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예정이다. 정보지원처 최창호 팀장은 "개편 완료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 단과대 홈페이지의 개선은 불투명하다. 개별 홈페이지의 기획, 운영은 해당 단과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일관된 관리 기준이 없어 UI(User Interface)와 기능도 제각각이다. 이는 2013년 우리신문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대학주보 제1555호 5면, 2013.11.18)

웹 표준을 준수할 것
홈페이지로 개편될 것

학내 다양한 사이트의 사용성을 통일하고 다양한 사용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연한 것이 웹 표준이다. 온라인에도 도량형과 같은 하나의 표준을 도입해 같은 웹페이지라면 어느 환경에서라도 똑같이 보이고 정상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넓은 개념이다. 웹 표준을 준수한다면 별도로 모바일 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과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웹페이지로 모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 양 캠퍼스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 중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제공하는 웹 표준 권고 validator.w3.org를 지키는 웹페이지는 한 곳도 없었다. 주요 홈페이지 중에서는 구글 서비스로 이관된 웹메일을 제외하면 국

문 홈페이지와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이 웹 표준 권고를 지키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이러한 웹 표준에 기반을 둔 메인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순 국문 홈페이지가, 연말 영문 홈페이지가 개편될 예정이다. 최신 웹 표준인 HTML5를 기준으로 개발해 사용자 기기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담당하는 홈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통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해 사용성과 유지관리를 모두 행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각 단과대, 학과, 부속기관 홈페이지의 일관적인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해당 기관에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해 전반적인 톤과 매너를 통일한다는 입장이다. 제각각 다른 접근성 문제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센터 박승훈 직원은 “현재 단과대, 학과 홈페이지들의 접근성 문제는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라며 “웹 표준을 준수하고 전자 정부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공통 CMS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웹의 아버지인 팀 베너스리는 “웹의 힘은 보편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9년 연말 아이폰의 발매로 촉발된 국내 웹 환경에 대한 제고는 이미 낡은 논의가 되버렸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교내 웹 환경이 눈앞에 있는 개편들을 통해 나아지길 기대해본다.

